

정부, 美 대선주자 접촉 나섰다

외교부 1차관 방미 매케인·오바마측 인사들과 잇단 만남

정부가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미국 대선주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한다.

권종락 외교교통상부 제1차관은 존 매케인·콘데 티 국무부 부장관과 워싱턴에서 2~3일(워싱턴 현지시간)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기 위해 1일 오전 출국했다.

양국 전략대화에서는 지난달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논의와 북핵 및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양국의 정책 방향이 주로 협의된다.

권 차관은 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이행계획서' 마련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략대화의 특성상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 보다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특히 이번 방미를 계기로 2일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 진영, 3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진영 인사들을 각각 접촉, 대

북 정책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내 주요 연구소 및 학계의 한반도와 동북아 전문가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제반 현안과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만큼 양측 진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향후 차기 미국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본토에 초강력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1일(현지시간) 미 본토에 상륙,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텍사스 주 티일러 허비 홀 컨벤션센터에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연합뉴스

美 남부 수백만명 대탈출

초대형 허리케인 '구스타브' 새벽 상륙...공화당 全大 축소

초강력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1일(현지시간) 미국 걸프 해안지역에 상륙,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3년 전 카트리나의 악몽이 시달리고 있는 뉴올리언스에는 강제대피령과 통행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은 전당대회 계획을 긴급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구스타브는 이날 쿠바의 서부지역을 지나면서 이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80mph를 넘는 바람자를 뒀고 시속 193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시속 27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이번 구스타브의 영향권은 루이지애나에서부터 텍사스, 앨라배마, 플로리다 주까지 800km에 이르러, 이들 지역에 사는 1천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구스타브의 위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스타브로 인해 6m에 이르는 파고와 38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초강력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이날 멕시코 만을 지나면서 세력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소 누그러졌지만 3년 전 카트리나의 피해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구스타브가 허리케인 중 최대 등급인 5등급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으며, 2005년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던 카트리나를 능가하거나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레이 내진 뉴올리언스 시장은 이날 강제 대피령을 발동하고 일몰 후부터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이 지역을 지나갈 때까지 통행금지 조치를 취했다.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루이지애나의 해안 도시들에서 현재까지 200만 명이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화당도 비상이 걸렸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디 체니 부통령이 1일부터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하는

전당대회 계획을 축소했다.

공화당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새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도 이날 비상사태가 발령된 미시시피 주를 방문해 주 재난지원통제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화당 전당대회 준비위 관계자들은 또 이번 전당대회를 애초에 계획했던 축제방식 대신 적십자와 다른 구호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마라톤 모금행사로 전환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구호기금을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쿠바를 통과해 북상하면서 피해상황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쿠바서부의 로스 팔라치오스에서는 8월31일 하루 사이에 상당수 목초 가옥이 부서졌으며 교회와 학교 건물, 양계장도 강풍을 동반한 후로 파괴됐다. /연합뉴스

DJ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풀어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일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동북아 안보기구가 구성돼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중국·러시아·일본과도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1동맹 3친선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일 발간된 격월간지 ‘민중화해’ 최신호(9·10월호)에 실린 민족화해협의회 10주년 특별대담(대담자 정세현 대표상임의장)에서 “동북아 안보체제와 통일문제를 다룰 때 남한과 북한, 미국의 3자 협력체제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또 그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 정권에서 한 것보다

을 정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나라를 신인하겠는가”라며 “정체된 남북관계를 풀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3의 합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잃어버린 10년 논쟁’과 관련 “(여권이 사용 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 사람들이 야당을 좌익시하고 예국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풀려는 태도를 바꾸어”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권리를 봉쇄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중일 핵 핫라인 구축

원자력 사고 연락 시스템

한중일 3국이 원자력발전소 등의 핵 관련 시설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긴급 통보하는 정부간 연락 시스템을 창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일 보도했다.

3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인근 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이란 내용의 협정을 조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3국간 연락 시스템은 ‘동북아시아 원자력안전 상급 포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핵안전국이 참가가 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연합뉴스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표기

한·일 대립 고조될 듯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분위기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파문 확산을 경계하면서 긴밀한 협의에 나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의 의결할 2008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방위성은 이날 오후 각국 무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방위백서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위

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중립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고 각국 무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 2005년부터, 4년 연속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일본측은 앞서 이날 오전 한국측에 방위백서의 내용을 별도로 사전 설명했고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

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발생한 한·일간 대립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방위백서안은 방위성이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어서 5일 각료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등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강경론도 제기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중 일본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감안해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美 공화당 全大, 부시보다 강경한 북핵폐기 정강정책 채택

미국 공화당은 1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한다.

공화당은 존 매케인 대선 후보의 국정 운영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표현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작년 초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폐기된 용어다. 따라서 매케인의 공화당이 ‘CVID 용어’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것은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차별

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북한을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광적인 독재국가’라고 강력히 비난해 집권할 경우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임을 거듭 예고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에 합의된 FTA를 의회가 즉각 토론하고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속원
공인중개사 김갑숙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건대 입점정 앞)

(주)옥션코리아
법원건대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동동	580/2539	14억 400만	7800만	해운대역
서구	유곡동	215/498	4억200만	2940만	해운대역/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201/753	3억	1970만	해운대역/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128/2185	16억270만	11억1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485/777	8억500만	5억18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413/650	9억700만	5억4300만	유곡동/신정동/가우
서구	신안동	201/295	2억 800만	1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문흥동	130/228	2억 600만	1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97/647	14억 700만	8억 27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다산동	524/318	3억 960만	1억 9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남평동	333/288	2억 400만	1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신정동	1859/2732	18억 800만	10억 5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죽림동	1859/555	29억 200만	19억 4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다기구(원룸)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동동	206/491	4억200만	2억 8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218/286	3억 800만	2억 1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395/731	4억 400만	3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187/346	2억 400만	1억 7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341/491	3억 200만	1억 8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158/281	2억 100만	1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숙박시설(모텔)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남평동	2816/1579	11억 400만	5억 3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2042/2948	19억 400만	8억 7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유곡동	3480/1028	11억	81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신정동	705/2972	22억 200만	15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553/7418	15억 800만	5억 7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동동	158/1	2억 900만	1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38.6	400만	19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신안동	33	280만	12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48.5	400만	17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차동동	39.5	530만	37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차동동	68.3	950만	53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농가관련시설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동동	806/323	4800만	17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2440/1356	29400만	197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532/737	6110만	43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284/256	6100만	34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4210/829	2억	1억 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아파트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동동	523/152	4800만	327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463/112	4000만	28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680/231	8740만	612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신안동	483/152	6530만	457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76/72	8300만	587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97/178	19800만	7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34/144	9970만	89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88/83	9770만	33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50/141	9390만	6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08/158	4750만	38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아파트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평가	최저가
서구	차동동	상남	165	9400만	8500만
서구	차동동	경신	165	19800만	7140만
서구	차동동	서동	69	4400만	3090만
서구	차동동	유곡동	72	8500만	4590만
서구	차동동	유곡동	109	9000만	6300만
서구	차동동	유곡동	69	8000만	4200만
서구	차동동	유곡동	108	19100만	7700만
서구	차동동	유곡동	109	8500만	5800만
서구	차동동	유곡동	115	19400만	9800만

▶공장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동동	3552/4858	30억	219000만	해운대역/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4942/4898	31억 2000만	219000만	해운대역/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757/7488	209000만	12910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883/671	4억 1000만	2940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2127/1332	11억	7970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2640/1549	4억	2940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982/701	9900만	34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3157/1854	7억 1000만	3940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854/942	893000만	3940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차동동	공화	129.84	29700만	198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차동동	공화	75.8	8300만	81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차동동	주공	50.72	4600만	32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차동동	주공	84.6	19800만	1억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차동동	주공	71.87	19100만	77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차동동	주공	50.4	7300만	511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기타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동동	5134/435	19400만	954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서구	회동동	1577/689	197300만	192000만	신정동/신정동/가우

전북 남원시
대216/21579
감평가1억4000만
최저가15억8000만
지리산호텔

회동동
대560/212538
감평가4억1400만
최저가17억9000만
사우나,헬스장

여수시물산동
대2585/21807
감평가18억5000만
최저가16억9630만
배 레스토랑

충정로2가
대197/21647
감평가4억7000만
최저가18억2700만
상가,사무실

나주남평동
대833/21268
감평가2억2400만
최저가1억2500만
음식점,레스토랑

계림동
대218/21396
감평가3억8000만
최저가1억1000만
원룸/계림7구역

대인동삼일부동산
☎(062)223-1110, 5210, 5211, 602-2532
(광주은행 신정동점, 대인동 소방서건대내)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건물임대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 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인정점/호프전문점/점점점포와 보도블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물리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기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대 문의
016-611-3424, 011-625-0510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80 · 010-9115-4487 위치: 화정동 세무소아래

수익성 최고 원룸, 전, 담 **수익성 최고 상가, 주택 상가건물**

- 서구 품암동/대지 210㎡/4F/원룸/보증금 8800만/평1320㎡/17억/보증금 4억 원/월440만원
- 서구 금호동/대지 230㎡/3F/안방/보증금 3천/월 200만원
- 광산구 연산동/전/1354㎡/매가4900만원
- 광산구 연산동/전/3303㎡/295천
- 광산구 고령동/전/925㎡/7천만원
- 광산구 우산동/담/3000㎡/950천
- 서구 세하동/도로접전/2642㎡/5억6천만원
- 서구 상촌동/대지/600㎡/건물1동/매가 1억7천만원
- 서구 화정동/대지 350㎡/전/평1320㎡/17억/보증금 4억 원/월440만원
- 서구 백천동/대지 221㎡/단층면적66㎡/매가1억
- 서구 상촌동/대지 160㎡/구한옥1동/매가7천
- 서구 상촌동/대지 350㎡/2F/건평165㎡/매가 2억6천5백만원
- 서구 상촌동/대지 859㎡/매가4억6천800만원
- 서구 매월동/대지 1123㎡/건평 198㎡/955천
- 서구 세하동/도로접전/2642㎡/5억6천만원
- 서구 세하동/대지 337㎡/구한옥1동/매가1억2천
- 서구 세하동/대지 480㎡/구한옥1동/매가 1억7천만원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건물 수시접수합니다.

※ 불인한 물가상승, 투자할 곳은 부동산 뿐입니다 ※
부동산의 입장에서 최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자연전 전체 개제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